

INSTITUTE

KOREA RESEARCH

FOR CONSTRUCTION POLICY



지표로 보는

# 건설시장과 이슈

## 🔍 시장동향 및 전망

### 건설시장

(’24. 4분기) 선행지표는 개선되나, 동행지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25. 1분기) 환율급등, 비상계엄 등 불확실성으로 건설경기 부진 전망

### 전문건설시장

(’24. 4분기) 계약액 감소 추세, 상대적으로 원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25. 1분기)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 업황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 주택시장

(’24. 4분기) 수도권 가격 상승세 지속, 거래에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 뚜렷  
(’25. 1분기) 시장 위축이 예상되나, 수도권의 임대차 가격 상승 우려 상존

## 🔍 이슈 진단

### 환율급등에 따른 건설시장 영향 점검

고환율이 지속되면 공사비 상승뿐 아니라 건설 수요 위축으로 침체 심화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의 의미와 영향

건설사업의 발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활력 요인으로 작용 기대

###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점검

단기적으로 하락·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

###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의 의미

2020년대 버전의 새마을 운동으로 노후 도심 주거환경개선에 긍정적 역할

# 시장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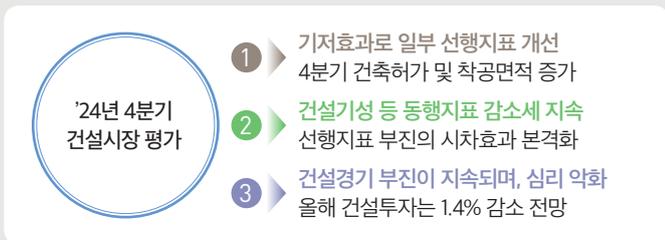
## 거시 경제 여건

- ▶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4%에서 2.2%로 0.2%p 하향 조정
  - 최근 소비, 투자 등 내수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는 상황
  -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2.1%에서 1.9%로 0.2%p 하향
- ▶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탄핵 정국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2025년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1.9%로 낮은 수치 제시

구분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보다 빠른 AI 반도체 상용화 확산</li> <li>•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러우전쟁 등) 완화</li> <li>•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인한 내수여건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수출 여건 악화</li> <li>•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li> <li>•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 회복 지연</li> </ul>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환율 지속</li> <li>• 기업의 비용상승 압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li> <li>•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지속</li> </ul>

## 건설 시장

### 건설시장 2024년 4/4분기 동향



- ▶ 기저효과에 의해 선행지표는 개선, 시차효과에 따라 동행지표 부진이 계속

### 건설시장 2025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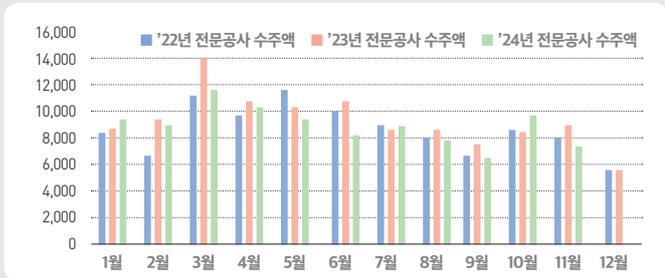


-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건설경기 및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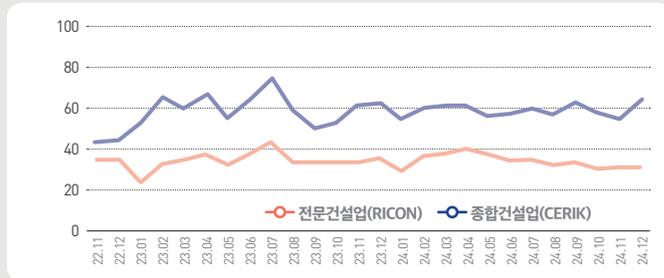
## 전문건설 & 생산요소

-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4분기에도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원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업체의 심리 악화를 반영

###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정치



### 종합 및 전문건설업 BSI 추이



## 주택시장

### 2024년 주택시장 평가

전국적으로 가격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며, 수도권 가격의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을 견인

### 2025년 주택시장 전망

지역(수도권-지방)과 유형(아파트-비아파트)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정성 확대

### 주택시장 2024년 4/4분기 동향

3/4분기에 이어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지속,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 뚜렷

### 주택시장 2025년 1/4분기 전망

내년 상반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예상되나, 수도권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상승 우려 상존

# 건설시장

## “ 2024년 4/4분기 건설시장: 기저효과로 일부 선행지표는 개선되었으나, 동행지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

- 건축착공면적 등 일부 선행지표는 기저효과로 개선되었으나, 건설기성으로 대표되는 동행지표는 감소세 심화**
  - 금액기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분기와 3분기 20%대 증가했으나, 10월에는 11.9% 감소하여 누계 7.1% 증가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상반기 18.7% 줄어들었으나, 이후 소폭 반등하여 10월 누계 10.3% 감소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은 기저효과에 의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누계 12.3% 증가
  - 금액기준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올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10월 누계 3.5% 감소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아파트 분양물량은 기저효과로 올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나, 평년 대비 여전히 적은 수준
-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선행지표 부진의 시차효과로 올해 건설투자는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11월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건설투자가 각각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건설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구분	2023년					202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0월 누계
건설수주(경상)	-12.7	-31.4	-44.8	22.9	-18.5	-15.6	20.9	27.0	-11.9	7.1
건설기성(불변)	11.5	8.7	10.1	0.9	7.4	4.1	-3.0	-9.2	-9.7	-3.5
건축허가면적(연면적)	-8.5	-33.5	-32.8	-24.3	-25.6	-20.6	-16.6	4.8	6.3	-10.3
건축착공면적(연면적)	-28.7	-46.5	-44.2	1.2	-31.7	-9.6	23.2	21.5	23.6	12.3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3.5	4.0	5.1	8.6	21.1	5.8	5.7	5.7	2.5	19.7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 “ 2025년 1/4분기 건설시장: 환율급등,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전망 ”

- 내년 1분기 건설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동행지표를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1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 육박하여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 환율 상승은 수입자재 상승을 촉발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 고통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기에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발주 위축 우려가 커지고, 건설기업 심리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될 우려 상존
  - 내년 1분기 건설경기는 민간-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며, 공공-토목부문은 재정 조기집행 등이 예상되어 경기 하락폭을 일부 상쇄할 전망
- 2025년 건설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에 비해 부정적인 요인이 큰 상황으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
  - 2025년 건설투자는 2024년 대비 1.2% 감소하여 300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세부적으로 공공투자자와 토목투자는 보합세로 판단되나, 민간투자 및 건물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25년 건설경기는 상반기 부진하다가 하반기 들어 소폭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본 전망치는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수치인만큼 공사비 불안과 부동산PF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건설투자 감소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

### 2025년 주요 기관별 건설투자 전망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회예산정책처(2024.10)	1.5%	1.8%	-2.1%	-0.9%	-1.1%
KDI(2024.11)	1.5%	0.4%	-3.8%	-1.8%	-0.7%
한국은행(2024.11)	1.5%	0.4%	-2.9%	-1.3%	-1.3%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4.11)	1.5%	0.4%	-3.0%	-1.4%	-1.2%

자료: 기관별 전망 자료

## 전문건설시장

### 2024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감소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원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4년 10월 9.7조 원, 11월 7.4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0월에는 일시적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11월에 재차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상황
  - 하반기 들어 전문건설업 하도급공사에 비해 원도급공사 부진이 커졌는데, 이는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소멸하면서 공공공사 발주가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한편,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종합건설사의 매출원가율이 '21년 87.5%에서 '24년 3분기 93.0%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문건설업체 역시 매출원가 상승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

'24년 4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잠정)

시 기	구분	추정 수주액(십억 원)	전년 동월비(%)	과거 3년 동월비(%)
'24년 10월	전문건설업 전체	9,712	+15.9	+18.2
	원도급공사	3,144	-2.0	+17.4
	하도급공사	6,568	+27.0	+18.5
'24년 11월	전문건설업 전체	7,429	-17.5	-2.9
	원도급공사	2,633	-5.7	+8.0
	하도급공사	4,796	-22.8	-8.0

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24.10~'24.11)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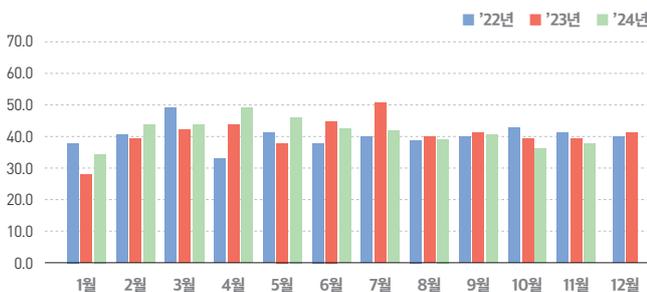
### 202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건설경기의 변동은 수년 단위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사업환경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전문건설업 공종과 지역에 따라 여건이 일부 상이하지만, 전체 업황의 가시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전문건설공사 계약은 통상 연초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나, 2022~2023년 선행지표 감소, 2024년 동행지표 부진 등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 전문건설업 업황은 부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2024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업체의 심리 악화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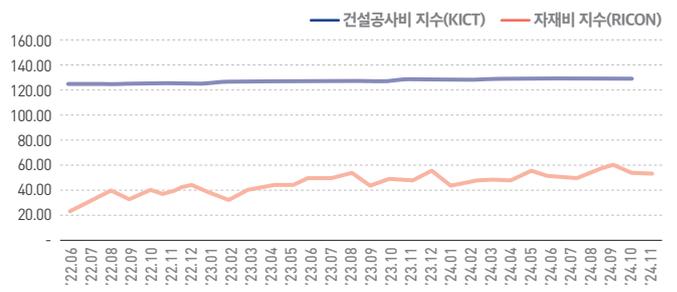
- 전문건설업 4분기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직전 분기보다 더욱 하락했으며, 당분간은 유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
  - 올해 전문건설업 BSI 평가는 50을 넘은 적이 한 차례도 없으며, 10월 이후에는 40 미만을 기록
  - 지방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수금의 어려움, 대출고관 등 자금난을 토로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증가
  - 또한, 내국인 기술자 부족, 자재수급 어려움도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
  - 일각에서는 전문건설업 심리 악화의 배경으로 대업종화로 인해 전문성이 낮은 업체들까지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상황 등을 지적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발주물량의 감소인 것으로 판단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 비교(최근 3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비교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월별 사전 전망 및 실제 평가치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전망	43.0	56.4	48.0	46.7	45.3	42.9	45.1	44.6	45.9	41.6
월별 평가	44.2	46.1	48.5	45.3	42.3	42.2	39.4	40.7	36.7	37.4

# 주택시장

## “ 2024년 4/4분기 주택시장: 3/4분기에 이어 수도권 상승세 지속,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 뚜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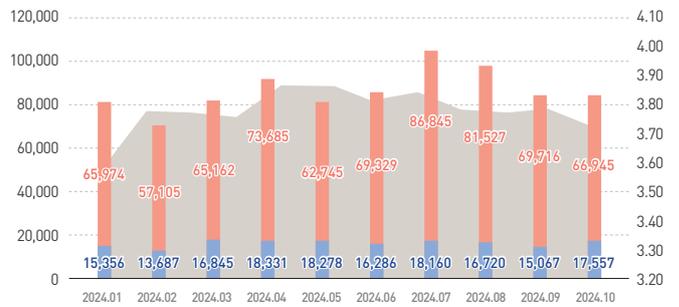
- (주택가격) '24년 상반기부터 11월 현재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9월부터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어 약한 상승세 유지**
  - 매매와 전세는 상승 폭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월세는 9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0.2%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월세 수요가 매매·전세 수요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
  - 이는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인한 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기대감과 ②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매수 관망, ③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으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주택거래) '24년 7월에 최대 거래량(105,005건)을 기록한 후, 10월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거래가 활발한 상황**
  - 전체 주택거래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래 비중이 약 80%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거래 비중 차이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 반영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변동률 단위: %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유형별 주택거래 현황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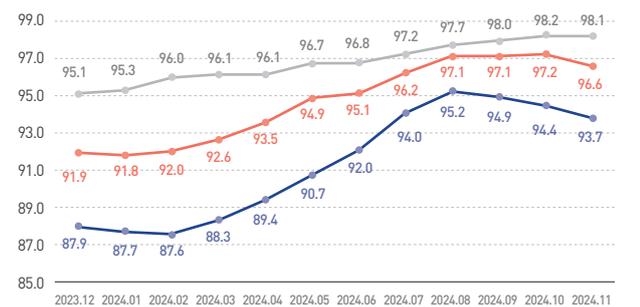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 “ 2025년 1/4분기 주택시장: 내년 상반기 시장 위축 예상, 수도권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상승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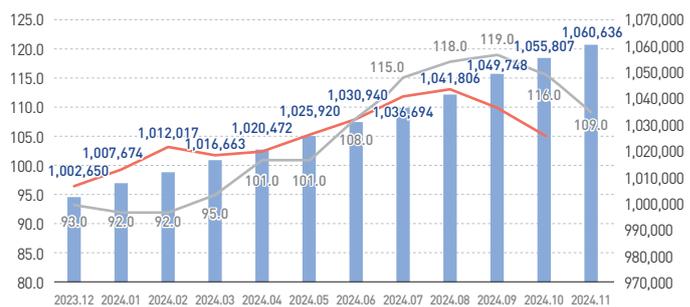
- (주택수급) '24년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지수와 마찬가지로 월세는 매매와 전세에 비해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을 유지**
  - 지방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내년에도 수도권은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므로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임대차 시장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매매 수요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격상승 압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주택담보대출)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24년 11월 기준 약 1,060조 원 수준을 기록(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달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24년 9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 내 시장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주택유형별 주택거래 현황 2021.6=100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소비심리지수 단위: 호



자료: 한국부동산원

# 건설·주택시장 이슈 진단

## 이슈 1. 환율급등에 따른 건설시장 영향 점검

- 환율은 외환의 수급, 물가수준, 이자율 등에 의해 결정되며, 한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
  - 올해 들어 원화의 가치는 다른 통화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1,3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
  - 최근 12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우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1,470원에 육박하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올해 원화 가치 하락폭은 주요국 가운데 5위 수준이며, 12월 낙폭만 약 5%로 브라질(6.8%)에 이어 2위인 상황
- 환율급등은 건설시장에 수입물가를 자극하여 자재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실제로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11월에는 수입자재 상승률이 6%로 국내용 0.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 대형건설사의 경우 자재를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해 당장 큰 영향은 없으나, 중소건설사는 단기 타격 불가피
  - 또한, 고환율이 지속되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수요가 줄어들어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침체 심화
  - 일각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사업 환차익을 기대하나, 비용상승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원달러 환율 추이(최근 3개월)



자료: 한국은행

중간재건설용 물가지수 추이(2020.01~2024.11)



자료: 한국은행

## 이슈 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의 의미와 영향

- 정부는 지난 11월 27일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
  - 선도지구는 분당 3개 구역(1.1만호), 일산 3개 구역(8.9천호), 평촌 3개 구역(5.5천호), 중동 2개 구역(6.0천호), 산본 2개 구역(4.6천호)을 선정하고 추가로 연립유형으로 2개 구역(분당, 일산) 1.4천호 별도 정비물량 선정
- 동시에 '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발표

특별정비구역 지원방안	세부 추진항목	주요 내용
①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소 제거	학교문제 사전해소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
	분담금 산출지원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 업무 지원
	전자동의 선제도입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5.3월 시범도입 추진
②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25년 모펀드 조성 완료, '26년 초기사업비부터 지원 계획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초기사업비부터 보증 추진
	기반시설 비용 조기자원	지자체 조기자원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운용
③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	협력체 구성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협력체의 통합정비 지원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주민-지자체 배포
	설명회 개최	선도지구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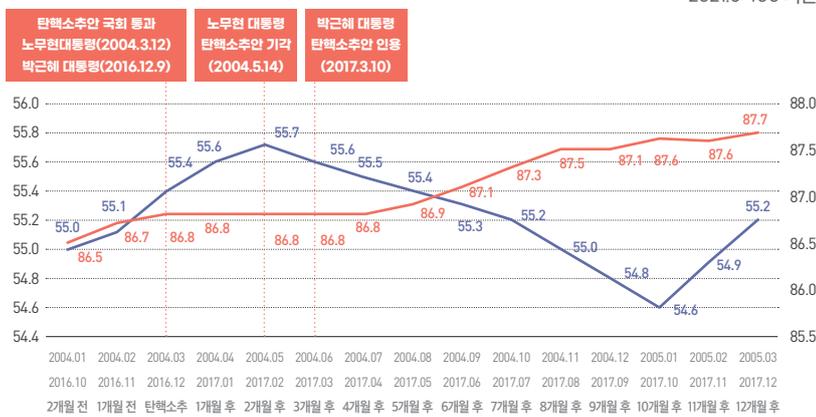
- 이와 관련하여 최근 12월 19일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택공급의 총량적 관점에서는 충분하나,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일시적·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수급 보완 방안 마련
  - 광역교통 개선 방안은 신도시 정비 전까지 적기 준공하고 대중교통 수요전환 유도 및 장기계획 마련
-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토대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
  -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의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노후 신도시의 정비가 단계적으로 활성화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

### 이슈 3.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점검

#### •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정치적 이슈 시기 전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검토

- (2004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3월부터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하였으나, 5월을 기점으로 약 8개월간 매매가격지수 하락세. 이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 후인 2005년 1월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
- (2016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부터 탄핵이 이루어진 3월까지 3개월간 매매가격지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4개월 이후인 '17년 4월부터 매매가격지수가 상승세로 전환. 다만, 주택거래량은 12월부터 약 2개월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탄핵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
- (영향점검) 국내 정치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해당 정치적 리스크보다는 당시 대내·외 여건과 같은 외부 경제적 요인들이 주택시장의 흐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주택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전후 주택매매가격지수 비교



자료: 한국부동산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주택거래량 추이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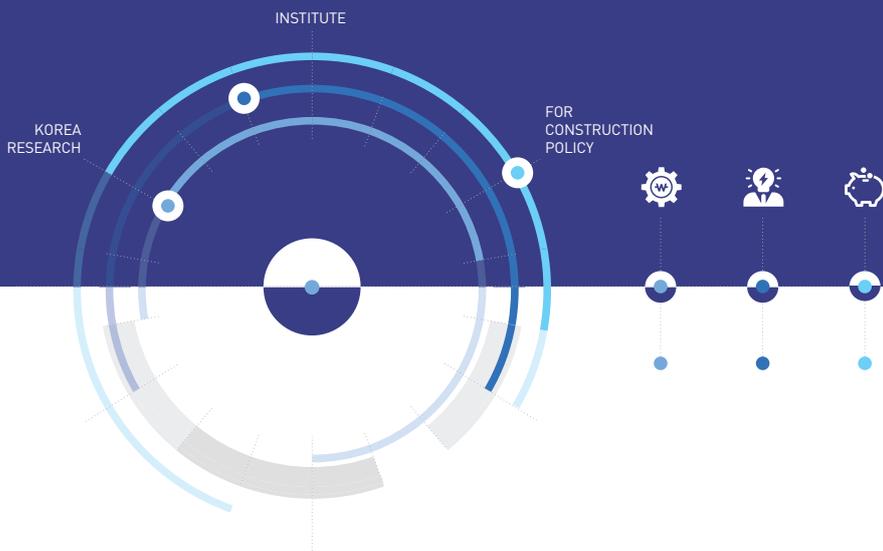
### 이슈 4.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의 의미

-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 뉴:빌리지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때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을 제공
  - 이는 2020년대 버전의 새마을 운동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
- 뉴:빌리지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노후지역의 생활인프라 구축에 더욱 비중을 두는 방식
  -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국비지원하고, 공모사업시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생활인프라 구축을 유도
  - 모든 노후지역을 아파트로 치환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시도

2024년 뉴:빌리지 사업 선정 결과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	3	2	1	3	1	1	3	2	1	4	4	3
종로(육인) 종로(신영) 중강북	사상 진연제	부평 남동	중	중남북	중	광산	광명 수원 김포	천안 금산	부안	강진 광양 담양 장흥	영주 경주 구미 상주	창원 남해 양산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2.23)



#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행일 2024. 12  
발행인 김희수  
발행위원 박선구, 이은형, 정대운, 고하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07071  
TEL 02-3284-2600 | FAX 02-3284-2620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